

집단프로그램 상황 대본극

◎ 차례

<부정적인 예, 긍정적인 예 발표하기;김혜민 작> 2-4p

<긍정적인 신념으로 대처했던 경험나누기;김용준 작> 4-6p

< 장점 나누기;최은선 작 > 5-8p

<서로 칭찬해주기;백승선 작> 7-11p

<스트레스 해소방법 발표하기;오한빛 작> 9-13p

<새로운 인생설계에 대한 발표하기;박혜정 작> 15p

<부정적인 예, 긍정적인 예 발표하기;김혜민 작>

W: 여러분 날씨도 더운데 모이시느라 고생하셨겠네요. 오늘도 모두에게 즐겁고 유익한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시작할게요. 오늘은 긍정적 대인관계를 하기위해서 긴장을 감소시키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주장 훈련과 여러분에게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 망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우선 제가 지금 나눠 드리는 4가지 사례에 대해서 보시고 상대방을 화내지 않게 하면서 자기주장을 하는 방법에 대해 발표해 보고 일상생활에서 긍정적 신념으로 대처했던 경험들에 대해서도 나눠 볼게요. 아셨죠?

모두: 네 ~

W: 예, 그럼 우선 4가지 사례를 보시고 첫 번째 사례 '시어머니는 아들이라고 남편을 늘 두둔하기만 한다.'에 대해서 먼저 부정적인 예부터 들어보고 긍정적 예로 바꿔 볼게요.

그럼 부정적인 예가 뭐가 있을 까요? 제가 먼저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럴 경우 며느리가 '제가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남편이 돈도 안 벌여주는데. 남편이 잘해줘야지 나도 잘하지요.' 라고 하겠죠. 이건 부정적인 예예요. 한분 씩 발표해 보실래요.

C: 저요

W: 예, 해보세요.

C: 당신 아들이 그렇게 귀하냐? 내가 당신 딸이라면 하루도 그런 꼴 보지 말라고 하셨을 거다.

W: 예, 잘하셨습니다. 이건 부정적인 예죠. 잘하셨습니다.

C: 예전에 가끔 시부모님하고 싸웠었는데 요샌 안 그래요.

I: 아. 저도 그랬었어요.

W: 예, 그렇군요. 그럼 있다가 긍정적인 예도 발표해 주실래요. 또 있나요?

I: "당신 아들만 귀한 아들인가. 나도 귀한 딸이다. 아들 그렇게 가르쳐놓고 나만 뭐라고 그러냐."

W: 예,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긍정적 예를 말해 볼까요? C님?

C: 아, 예 음..... '어머니, 아들이 자주 외박을 해서 걱정이 되어 같이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머니께서 일방적으로 아들만 두둔하니 이야기를 꺼내기 힘들어요.'

W: 예, 잘 하셨습니다. I님도 있으신가요?

I: 아. 저도 비슷해요.

W: 예, 이렇게 상대방을 화내지 않게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전달해야죠. 내가 상대방에게 화가 났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상대방도 화를 내게 되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싸움만 일어나겠죠. 이럴 때 내가 상대방과의 긍정적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대화를 하려면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침착하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현재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상의 해야겠지요.

모두: 네

W: 그럼 두 번째 사례를 볼까요? 이웃집 여자가 '남편은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하는데 그 집 남편은 왜 허구한 날 술만 마시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네요. 이럴 때 부정적인 예는 뭐가 있을까요?

C: 저요, '할일 없으면 집에서 잠이나 자 이 아줌마야!'

모두: 하하하

W: 예, 잘 찾으셨네요. 그럼 다른 분?

J: 아, 나요. '네가 한번 데리고 살아봐라'

W: 또 있나요?

I: '남의 집안일 상관 말고 당신이나 잘하쇼.'

W: 예, 모두 잘하시네요. 그럼 긍정적인 대처는 어떤 걸까요?

J: 아, 나요.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술 먹는 병에 걸렸으니 이웃에서 좀 도와주세요.'

W: 예,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술을 먹는 것이 부인 잘못도 아니죠. 그건 어디까지나 병에 걸린 문제이고 치료와 재활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거죠. 동시에 이웃에게 도움과 지지도 요청 하셨으니 정말 잘 하신거예요.

W: 사례 3번 재발을 한 대상, 여기서는 남편에게 뭐라고 할까요? 먼저 부정적인 예요.

C: '아이고, 이 화상아 네가 그럼 그렇지. '

모두: 하하하

J: 저도 아내가 자주 그런 말을 해서 싸움을 했었어요.

W: 예. 그렇군요. 다른 분 있나요.

J: '이 인간아 널 믿은 내가 바보다.'

I: 아내들은 곧 그러는 것 같애 내 탓 아니면 남편 탓을 하게 되드라고. 꼭 그런것만은 아닌대.

J: 그렇죠. 알코올 중독이 자기 뜻대로만 되면 세상에 병원이 없을 거예요.

C: 맞아요.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W: 예 그렇죠. 그럼 이제 긍정적인 예를 말해 볼까요.

I: '알코올중독은 쉽게 낫지 않는데다가 재발도 자주 할 수 있다고 그러니 너무 낙담하지 말고 우리 다시 힘내서 이번에는 꼭 병을 이겨 냅시다.'

W: 예, 잘하셨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남편이나 본인 탓을 하지 않고 도리어 남편을 위로해 주면서 힘을 주는 말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하면 금방 다시 돌아 올수 있다는 희망을 남편만 아니라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겠죠.

W: 다음 사례 4번은 회식이나 약속 때문에 늦게 들어온 남편이나 자녀예요. 술 냄새는 나지만 많이 먹지는 않은 것 같네요.

I: 저는 아마 '또 늦게 들어오지, 어째 변하나 싶더니 똑같다.' 이럴 것 같네요.

C: 맞아 맞아, 꼭 그렇게 안 좋게 얘길 하지, 좋게 말 할 수도 있는데

J: 나도 남편하고 그래서 자주 싸웠었나 봐

W: 그럼 긍정적인 예는 뭐가 있을까요?

C: 우선 술을 많이 안 먹고 들어온 것에 대해 기뻐해줘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늦으면 연락을 해달라고 꼭 말해 줘요. 그리고 앞으로는 자조모임에서 배운 대로 슬기롭게 술자리를 대처 하는 방법에 대해 서로 이야기기해요. 만약 좀 취했다면 내일 이야기 하고요.

전체 15페이지 중 4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 '전체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보기

(사회복지) 일대일 상담대본 및 집단프로그램 상황 대본극 6개

저작시기 : 2010-05

등록시기 : 2010-05-07

자료형태 : hwp, pdf

분 류 : 사회과학

출 처 : <https://www.happycampus.com/report-doc/10911044/>

--- 주의 사항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